[교회 표어] ·은혜충만 · 진리충만
[교회 3대 목표]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성도생활의 목표]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각 나라별 선교회

구 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율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 김포, 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							

교회학교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대 상 :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 · 고등부 학생 누구나
▶장 소 :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방 법 :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 · 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일시(1차) : 3월 6일(월) ~ 3월 24일(금)/3주간, (※2차는 4월 초 시작 예정)
평일- 오후 7시~10시/3시간, 수요일- 9시~11시/2시간(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모집기간 : 상시 모집(신청자에게 줌링크 개별공지)
▶문 의 :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 독서실' 담당자 (☎ 010-9175-2356)
▶신청방법 :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②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봉사자 모집

▶대 상 : 위와 같이 중 · 고등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지도가 가능한 성도님
▶신청방법 : 위와 동일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QR 코드 :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 (광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3월 1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1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고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
고난 중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 정갑도 -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디모데전서 1:12). 할렐루야! 저에게 귀한 권사 직분을 주시고 오늘 충만한 행복감과 사명감과 소속감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니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생의 큰 고비마다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음에 주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하며 무한히 감사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여 주신 기적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저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청년의 때는 직장 동료를 통해서 틈만 나면 성경 말씀을 제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싫은 내색이 역력한 저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열심히 저를 전도하며 교회에 나가자고 강권하였습니다. 콩나물시루에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 그때그때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서서히 씨앗이 움트고 어느새 콩나물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말씀의 생수를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친정어머니가 중한 병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삼대독자인 아버지와 결혼하고 집안의 외며느리가 되어 지극정성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어머니가 50세에 직장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신유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시는 것을 집안 어른들이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신한 후 단번에 모든 제사를 폐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초기는 오래 우상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여러 가지 우상의 모양이 자리하고 있던 저희 집안에서 처절한 영적 싸움이 벌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굴하지 않고 힘을 내어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성회를 할 때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힘차게 손뼉 치며 찬송하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저의 두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5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저는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런 저와 형제들이 낙망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천국에 관한 성경말씀으로 위로해주며 믿음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한복음 12:24). 어머니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투영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더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12,13). 아멘!

제가 결혼을 하고 안산시로 이사를 왔을 때 은혜와진리교회 안산성전 교회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새교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한 첫 날,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될 때 강단에서 어떤 강렬한 빛이 비취고 그 순간 제 몸이 몹시 뜨거워지는 기이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제 심령에 가득 임하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날마다 예배시간을 기다리며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였습니다.

교양과 품위가 있으신 구역장님과 수구역장님이 열과 성을 가지고 저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며 여러모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안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비교할 때 수동적이고 위축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1990년대 초에 이곳 안산은 한창 개발이 진행중인 지역이 많았습니다. 구역예배와 성도들의 기도모임에 참석하려면 저는 아이들을 하나는 등에 업고 또 하나는 손잡고 뙤약볕을 가리려 양산까지 쓴 채,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예배장소를 찾아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예배 장소를 알려주는 구역장님의 전화를 받고 귀찮아하며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못 가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먼저 전화를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배 시간에 회개에 관한 설교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 무척 두렵고 죄송한 마음에 왈칵 눈물이 나 기도 시간에 진심으로 회개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큰 위로와 새힘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과 영적으로 대면하는 신령스러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하면서 에녹처럼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저의 생활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안정되고 구역장 직분을 받아 전도에 힘쓰며 성가대에서 봉사하면서 늘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하고 찬송할 때, 인생이 뿌리째 흔들리며 깊은 웅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하고 여섯 살 막내부터 중학생 큰아이까지 삼남매를 홀로 키워야 하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주님의 품안에서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며 마음 편하게 살다가 나가서 직접 돈을 벌고 홀로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 고난 중에 저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만나 기도하고 인내하며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 저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옅은 믿음이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신앙생활의 기간이나 직분이 그 증거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통해 잘 훈련되고 단련되어져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고난의 시간은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저에게는 주님 한 분 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재설정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께 불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일조 헌금입니다. 신앙생활의 초기에 정성껏 헌금을 하지 않거나 거르고 나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의무감에 수동적으로 십일조를 드린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형편이 어렵게 되자 "하나님, 저의 지금 형편을 아시잖아요. 얼마동안 제가 십일조를 드리지 못해도 너그럽게 용납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고린도후서 9:10) 하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을 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를 심어야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씨를 심지 아니하고 먹어버리면 더 가난하게 되리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였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말라기 3:8). 저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의 행함을 보시고 복을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신성한 특권으로 알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0). 아멘!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을 하자 이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또 여러 방면에서 크고 작은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인 줄 모를 만큼 저와 아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집안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물 붓듯이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삼 남매가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자라서 오늘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청년이 되어 얼마나 마음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2021년 초, 나이가 환갑이 된 해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자신을 돌볼 겨를 없이 살아온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잠시 동안 '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저를 치료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수술에 임하고 이어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과 치료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위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당회장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제 작지만 저에게는 귀한 이 사업장을 선교지 삼아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려고 합니다. 권사 임직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당부말씀을 늘 잊지 않고 직임에 따르는 수고와 희생을 큰 특권으로 여기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지혜와 힘을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1절~12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12장 1절~12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96장(새찬송 84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리 수만 명'이란 막연하게 무수히 많은 수를 형용하는 표현방식입니다. '수만 명'이라는 원어의 낱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있어서 '늘 그러했듯이 수많은 군중'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누룩은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고 좋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파급 효과'에 대한 의미로 말하려 할 때 누룩으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쁜 의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외식(外飾)'이란 '위선(僞善)'을 의미합니다. 속과 겉이 다름을 뜻합니다. 겉으로만 옳고 착한 체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의식(儀式)의 참뜻과 본질은 무시하고 자기과시를 위해 율법을 아주 세분화하여 허례허식과 가식과 정죄를 일삼는 바리새인들의 행위들을 질타하신 예수께서 앞의 내용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집약하여 마무리 지었습니다. 신앙에 관련하여 특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참된 뜻을 왜곡되게 하는 가르침은 모두 괴악한 누룩 같으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비롯하여 신자들에게 복음전파에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가 경험하게 될 현상과 직면하게 될 박해와 올바른 대처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성령의 도우심에 관하여 연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제자들이 조심하고 은밀하게 말한 복음이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100년 전만 하여도 상상치 못하였던 통신기기가 발명되고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에서 1920년 11월 2일 세계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방송 통신 수단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녹음기, 녹화기, 촬영기기와 위성중계, 광케이블, 무선 인터넷망 등을 활용하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뿐 아니라 간단한 방송장비만 있으면 골방에서 하는 말을 집밖으로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친구 너희'라고 매우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의식하게 하는 칭호를 사용하신 이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매우 신중하게 듣고 명심하도록 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박해자로 인해 죽음의 위기에 노출될 것이므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진정 두려워할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므로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공포심이 아니고 신앙적인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다섯이 앗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주 예수께서 참새와 머리털 비유로써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참새 다섯이 앗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를 대조해보면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앗사리온 한 개를 지불하면 참새 두 마리를 주는데 앗사리온 둘을 지불하면 참새 다섯 마리를 주는 것을 보면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덤으로 주는 참새까지 알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였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수는 평균 10만 개 정도입니다. 금발은 약 14만개, 흑발은 약 12만개, 적발은 약 9만개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데까지 살피시고 섭리하여 주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은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상하신 섭리를 믿고 낙심치 않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천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물건보다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물건을 누구나 훨씬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유념하십시오. 베드로전서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19)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하였습니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손실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는가, 잊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결코 그렇지 않다는 확신을 갖도록 이러한 비유로써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요한 외에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그리 될 것을 주님께서 모르실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방법과 섭리는 우리의 이해가 다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날 모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며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시겠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꼭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으로 시인함에는 복되고 중대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인도하여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 숲에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대한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라고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의 질문에 대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하셨습니다. '여호와'라는 칭호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백할 때 그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 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 I am who I am.)"는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am은 "나는 존재한다."는 뜻과 함께 "나는 ~ 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I am 나는 ~ 이다."라고 하셨습니다. I am이라는 이름은 마치 서명 날인되었으나 금액란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와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과 약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행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은 문제 해결책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 길로 행진하고 가나안땅을 점령해야 할 그의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충족하게 하는 이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 이다."라는 칭호를 가지고 해결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왕 바로를 굴복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애굽 군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혹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나왔다고 하더라도 남녀노소 200여만 명이나 되는 무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낮의 불볕 더위와 밤의 추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적을 방어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과 장대한 백성 그리고 싸움에 능하며 강력한 무기를 갖춘 가나안 사람들을 쳐서 점령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애굽 왕은 모세 앞에 굴복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금은 패물을 내어 놓았습니다. 홍해는 길을 열었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여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반석이 솟구쳐 내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은 패주하였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자기선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선언이며 자기 계시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고백을 요청하는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번역된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예호와"를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는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자기 선언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 이다."라는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이 자기정체를 밝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기록된 신약성경 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에 34회, 요한복음에는 177회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왕이니라."(요6:35 요8:12 요10:7,10,11 요11:25 요14:6 요15:1, 요18: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이며 자기 선언인 "나는 ~ 이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고백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 본보기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 선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7~19).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나의 ~입니다."라고 대답한 고백 위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시인하는 일에 모범을 보인 인물 가운데 다윗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이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시 3:3)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1,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시 27:1).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입니다. 나의 구원의 뿔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 하였습니다. (시3:3, 시23:1, 시27:1, 시18:2)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모색하고 상기하며 적극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옳다는 것을 현실적인 도움과 여러 가지 변화를 통해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본질과 품성과 약속에 부합되는 낱말이나 문장으로 "하나님은 나의 ~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입니다."라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기를 즐기십시오.

여러분은 전도하는 경우 외에도 기회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 적극적으로 표명하십시오. 신자들의 모임과 예배에서는 다수의 사람과 함께 신앙고백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자들의 예배 모임마다 이를 일률적으로 행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에서의 정규 예배 시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는 순서를 두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면 마음으로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결신자를 위한 신앙고백 기도문은 마치 사도신경처럼 신자들의 신앙고백 기도문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도 소리 내어 따라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심한 듯 입을 꼭 다물지 마시고,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소리 내어 고백하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위한 말씀도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이 말씀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거역하던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거역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고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췸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 6:4~6).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고도 오묘함을 깨닫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게 된 사람이 무슨 이유에서든 타락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길이 없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연유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내 배척하는 행위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 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거든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적절한 대답을 하도록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말씀이 실감나게 하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 가문이 모인 공회로 끌려가서 변론하는 장면과 빌립 집사가 공회로 끌려가서 재판받는 장면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론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오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귀족층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의 지파나 지역 대표자인 장로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기 위해 모였는데 특히 대제사장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참예할 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심문의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답변했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이라고 말문을 연 다음 유창하게 진술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태도로 변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사실에 근거한 논리 정연한 변론에 대해 변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고 무리하게 누명을 씌우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재판정 밖으로 내어 보내어 대기하게 한 다음 의논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나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들이고 엄명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한 태도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처럼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 재판정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진술하고 변론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줍니다.

사도들의 대답은 참으로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원들이 저희를 어떻게 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산헤드린 법정의 그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이처럼 담대한 자세로 공회원들을 압도하는 유창한 변론을 한 것에 대하여 성경에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여 역사하신 성령께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하여 계십니다.